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출판정책 독서는 상상력의 근본이자 모든 문화의 '원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출판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창조경제와 출판'에 대해, 김기덕 건국대 교수가 '문화융성과 출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김기덕 교수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게재한다.

편집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여전히 영원한 진리이다.

1866년 프랑스 해군이 강화도로 침범한 사건을 병인양요라고 한다. 당시 프랑스 군대의 쥐베르 장교는 조선 땅에서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 내용 중에는 '이곳에서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가난



김기덕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 집이라도 어디든지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쥐베르는 이러한 한국의 책 문화에 매우 충격을 받은 듯, 문자 기록문 외에도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방에는 책이 있고, 그 책을 꺼내어 읽고 있는 삽화를 그리기까지 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본 것에서 계발된다. 이미지만으로는 결코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이 나올 수 없다. 높은 수준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책을 읽는 것까지 결합되어야 구현될 수 있다.

문화융성을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시대에는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풍토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책을 읽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 시대 문화를 이끌고 경제를 부흥하며 시대를 선도할 것인가? 낮은 수준에서는 책을 읽지 않아도 되지만, 높은 수준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지 않고서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이 점을 모두가, 특히 지식인이 더욱 자주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판계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책읽기는 여전히 진리이지만, 여기에도 시대변화에 따른 기획

력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책관련 TV 방송은 역 추적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책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다양한 현실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끄집어 낸 후, 그에 대한 깊은 사유가 이 책에 담겨 있다는 방식으로 책읽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먼저 분석하고 그에 대해 역추적을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읽기의 효용에 빠질 것이다. 물론 기존의 책읽기 방식이 이러한 점을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TV 방송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실 역추적의 책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현재 TV에 방영되고 있는 <한국의 유산>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책'을 주제로 한 영상도 기획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유산>은 일종의 브리지 역할을 하면서 짧고 간결한 언어로 전통유산의 중요성을 잘 전달해주고 있다. TV 방송에서 브리지의 활용으로 책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획도 책읽기의 확산을 위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항상 이미지가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출판의 외화작업에 있어 동영상의 TV만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라디오라는 매체는 책과 딱 들어맞는다. 앞으로 라디오 등과 결합된 오디오콘텐츠에 대한 기획과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책읽기는 공공도서관 문화를 통하는 것이 첩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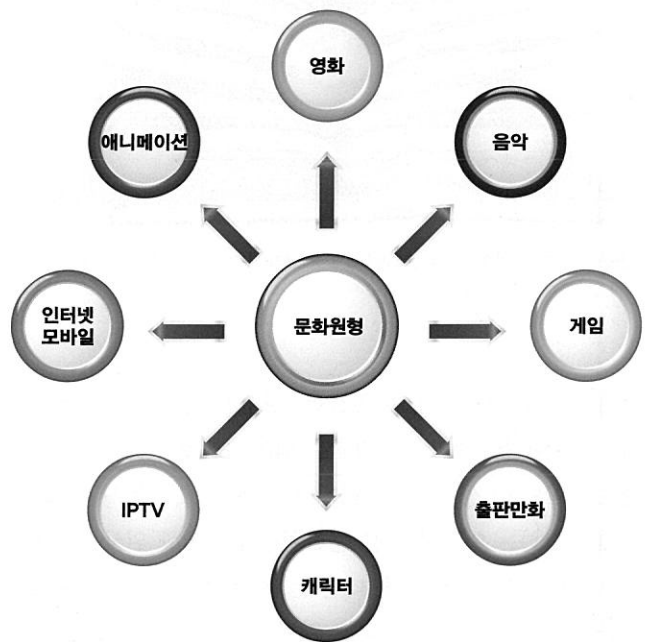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박물관 도서관을 인문학 부흥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서관문화에 대해 좀 더 강조해 보고자 한다.

문화융성의 핵심허브는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800개 정도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규모는 적어도 되지만 지방의 경우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공공도서관이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도서관이 토털 문화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가장 용이하고 효율적인 공간이다. 책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강좌,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문화전반의 핵심공간을 도서관으로 하는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장소적 거점이 필요하다. 문화의 종합적 장소 거점으로 도서관만큼 유효한 곳이 없는 것이다.

도서관과 관련해 독서해설사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다. 이 제도는 아마도 가장 성공한 제도중의 하나일 것이다.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을 시킨 후, 각 문화유산 장소에 배치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해설해 준다. 교육 이

후에 활동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일종의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홍보대사인 셈이다. 책읽기의 확산과 출판의 진흥은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도서관이 좀 더 문화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독서해설사'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교육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지며,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언제든지 서비스할 수 있는 독서해설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가장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그림1>문화콘텐츠와 문화원형

전통출판과 전자출판은 제로섬이 아닌 시너지이다.

흔히 종이책에서 전자책시대로 옮겨간다고 말한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단순 뺄셈과 덧셈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니다. 물론 통계라는 것이 있어 그러한 추세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림1>은 너무 오랫동안 인용돼 이제는 상식화된 도식이다. 모든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원천은 문화원형이라는 것이다. 실제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재개발과 소재기획에 바탕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때에, 모든 기본 소재와 스토리텔링의 원천이 문화원형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가운데 '문화원형'이라는 것에 '인문학'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화원형은 결국 인문학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출판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한 분야이다. 콘텐츠산업통계 분류체계에는 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출판은 책 출판 외에 매체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 창출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등이 있다. 이처럼 출판이란 장르의 위의 그림처럼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의 한 장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특성상 원천소스에 해당하는 인문학 혹은 문화원형과 동일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에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원천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출판은 책 출판 외에 매체 전환을 통해 창조경제시대 문화콘텐츠 창출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출판의 다양한 매체적 전환은 단순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출판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캐릭터산업, 영상콘텐츠 산업, 모바일산업 등 전체 문화콘텐츠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출판 영역의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출판의 매체적 전환은 출판으로 하여금 '고기잡는 어부'를 만들 인재를 양성하게 해 줄 것이며, 이는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무엇보다 전통출판과 전자출판은 서로 상생해 시너지를 내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의 개념 및 발전은 기존 단순한 전자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든 전통출판의 전제위에서 구축되지 않는다면 퀄리티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자책 시장의 미래는 한마디로 '어떤 콘텐츠를 어떤 품질로 제작하고, 어떤 가치를 구현해

낼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중 가장 핵심은 '어떤 콘텐츠'이다. 그것이 있어야 제작구현이 가능하다. '어떤 콘텐츠'는 전통출판에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출판과 전자출판은 공동의 우물을 파는 책 생태계 협동화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통출판과 전자출판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국가적 투자는 창조경제의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 당분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새로운 전자책 생태계로 인해 갈등요인도 발생할 것이나, 전자출판이 어떻게 진화하든 전통출판과 전자출판은 결국 출판의 진화로 이해해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존의 콘텐츠를 새로운 저작물로 탄생시키는 공정을 통해 콘텐츠를 현대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재창조해 세상에 내놓는 출판의 시너지를 실현해야 한다.

출판은 한류 3.0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문화콘텐츠가 유행하고 한류가 뜨면서, 상대적으로 출판은 더욱 위축된 듯이 보인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 출간을 계기로 출판한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의 시대 변화속에서 출판은 더욱 왜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드라마 중심의 한류 1.0시대와 K-POP확산을 중심으로 한 한류 2.0 시대를 거쳐, 한류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파급하기 위한 한류 3.0 시대를 선언했다.

한류 1.0 (1995~2005)
드라마, 영화, 소량의 음악 (영상콘텐츠 중심)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
▼
한류 2.0 (2006~2011)
다량의 K-POP, 드라마, 영화 (아이돌스타 중심)
아시아, 북남미, 일부 유럽
▼
한류 3.0 (2012~)
한국문화 전반
전세계

한류의 기준

이러한 신한류 시대에 전통문화의 육성을 통해 국격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한류 3.0시대를 열어간다는 구상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류 3.0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전통문화를 포함해 한국문화 전반으로 그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에 출판계도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출판한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직접 현장을 가거나 스마트폰 등으로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판 영역이 가장 많이 개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출판 콘텐츠의 우수성을 새롭고 용감하게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단과 통일 ▲독재와 민주 ▲전통과 현대 ▲단일화와 다문화 ▲가난과 풍요 ▲동양과 서양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의 유례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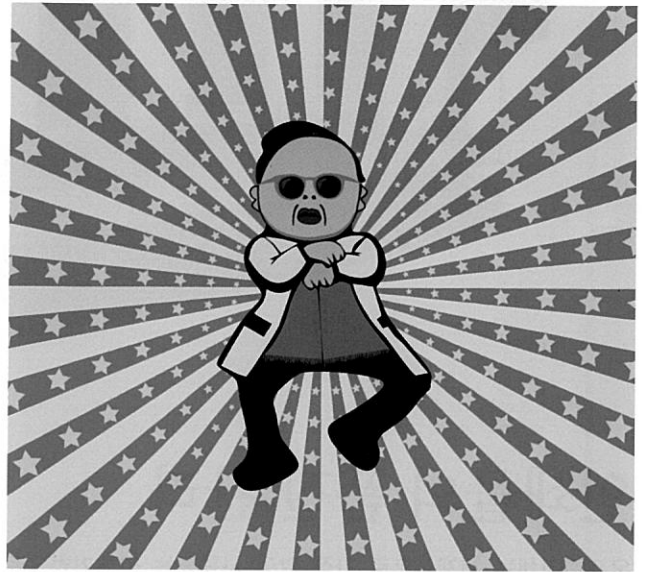
이러한 양면적 고민속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영화스토리텔링을 통해 영화산업의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왔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양면성에 입각한 우리의 고민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재개발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점에서 출판이 더욱 적극적으로 한류 3.0시대 출판한류를 이끌 기획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과연 한류를 누가 예언했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누가 예상했는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매체전환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한다면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출판한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출판계의 분발을 요구한다.

결론: 창조경제에는 창조독서가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영국식의 창조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창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에는 '독서'와 그것을 통한 사고력의 증진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릴 때부터 탈무드와 성서를 비롯해 다양한 독서를 수행한다. 이러한 인문독서를 통해 비판적 책임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비판적 책임기의 핵심은 질문의 방식이다. 다양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며 그것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전통위에 벤처 창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새 정부가 바로 이러한 밑바탕은 빼놓은 채 그 위



전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린 '씨이'.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도 성공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에 올려져 있는 벤처창업의 노하우만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클 것이다. 창조경제의 밑바탕에는 인문독서를 통한 비판적 책임기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그것을 '창조독서'라고 표현해 보고자 한다. 창조경제에는 창조독서가 필요한 것이다.

필자가 강조한 책임기의 확산, 도서관 확대 및 문화허브 기관 역할 수행, 매체 전환을 통한 출판콘텐츠의 확산,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통한 출판한류의 구현 등은 모두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독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업무계획을 소개했지만 다소 병렬적일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창조독서는 문화 융성을 위한 다른 요소와 병렬적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기초 전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출판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출판계는 새로운 미디어와 잘 결합해 읽기 문화를 확산하는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출판계에 주어진 가장 커다란 현안이다.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스스로 실천할 것을 해 나가야 한다. 문화융성의 일차적 실현주체, 토대가 되는 실현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출판계인 것이다.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출판계의 다양한 기획력을 기대한다. 설사 정부는 못하더라도 출판계는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출판의 시대적 소명이다.☺